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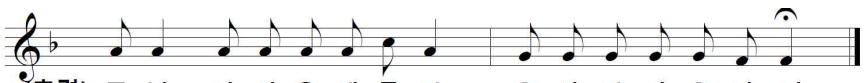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열왕 19,16ㄴ.19-21

[화답송] ····· 시편 16(15),1-2ㄱ과 5.7-8.9-10.11 (◎ 5ㄱ 참조)



(후렴) 주 님, 당 신 은 제 몫 의 유 산 이 시 옵 니 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제 2 독서] ····· 갈라 5,1.13-18

[복음 환호송] ····· 사무 3,9:요한 6,68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 루카 9,51-62

[성가안내]

-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 봉헌성가 [340] 봉헌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202] 구세주의 성심이여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영애 레지나
서 병철 니고나오	서 율리아
한 주천 모니카	김승현 마리아, 김민규 요셉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가족
이 영애 레지나	이 정현 헬레나
이 희경 젬마	이 정현 헬레나
노 시원 임마누엘라/노 시윤 글로리아	김 유화 데레사
표 해심 카타리나	황 경숙 수산나
조 성자 데레사 (생일 축하)	최 병남 미카엘라
제 39차 지구 울뜨레아의 성공을 위하여	김 미화 마리클레어
김 재언 스테파노, 박 효순 마틸다	김승현 마리아, 김민규 요셉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6월26일	정동주 유스토	최미루 로사	김유화 데레사	김유화 데레사	양미숙 마리아	김승현 마리아	김민규 요셉
7월 3일	이지훈 아녜스	김규헌 프란치스코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이지연 안젤라	김진수 대건 안드레아

- **사목협의회 있습니다.**
  - 오늘, 주일 미사 후 컨퍼런스 룸 (2F)

- **축하합니다.**
  - 우리 맨하탄 한인 공동체에서는 처음으로 민완준 필립보께서 미 동북부 울뜨레아의 공로상을 받으십니다.

- **울뜨레아 동북부지구 모임 있습니다.**
  - 일 시: 7월 4일 (월)
  - 장 소: 데마레스트 성 요셉 성당
  - 문 의: 김미화 마리 클레어 간사

- **청년 레지오 묵주기도 'Zoom'**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 Passcode : 368464

- **청년 레지오 '우리 즐거움의 원천' 주회 공지입니다.**
  - 일 시 : 주일미사 후 11시
  - 장 소 : Korean Conference Room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예수 성심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내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유아세례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2022년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이경희 (미카엘라)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9, 51-62)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이야기입니다. 루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성소 이야기를 여기에 편집했습니다. 성소는 제 스스로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 차렸다 하더라도 응답이 굼뜨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재촉하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을 서두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몰입하여 소명의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 스승의 길을 제자들이라면 그들도 뒤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준비는 자기 뜻을 꺾고 성령의 이끄심에 맡겨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갖춘 것을 '성령을 입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독서 열왕기 상권은 '엘리아가 하느님을 만나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예언자로 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이 제스처가 의미하는 것은 엘리야의 영을 엘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입어 제자가 되는 복음의 주제와 상통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의 시중을 들며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의 독서 갈라티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육과 성령'이야기입니다.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얻어 주신 자유를 잃고 육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 서로 싸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됨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교회헌장이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모든 제자는 그 준비를 갖추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가 늘 겪고 있는 박해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교회 헌장 42항)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참 영성이란?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은 특정한 종교만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심리를 공부하고 난 후 많은 종교인들과 종교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영성이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란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식들임을 생각하며 함께 살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영성생활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성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인종이나 종교나 나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성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들임을 하느님 앞에서 한 형제임을 유념하며 삽니다. 또한 영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분들이 바로 진정한 영성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와 민족, 인종을 떠나서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 곳곳에서 영성의 좋은 향기를 풍기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해주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 반(反)영성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반영성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것을 반영성적이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의 내면은 가학적이고 복수심으로 가득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는 자신들 안의 증오심을 외부로 투사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단시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남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오래전 콜롬비아의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의 마녀사냥이 남미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건물 안에는 원주민들이 마귀가 들렸다고 살육을 하는 그림이 걸려있었고, 마당에는 그 당시 원주민들을 사형시키기 위한 단두대와 교수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반영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남미에서 종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마녀사냥이란 이름으로 대량학살이 자행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하더라도 이들의 독선적인 마음 안에 또아리 틀고 숨어있는 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